

**Seven signs – Sermon 6: Sermon notes**

Title: “Don't be afraid”

The Fifth sign: Jesus walks on water

Scripture: John 6:16-21

Date preached: July 17th 2022

**Scripture: John 6:16-21**

**16 Now when evening came, His disciples went down to the sea, 17 got into the boat, and went over the sea toward Capernaum. And it was already dark, and Jesus had not come to them. 18 Then the sea arose because a great wind was blowing. 19 So when they had rowed about three or four miles, they saw Jesus walking on the sea and drawing near the boat; and they were afraid. 20 But He said to them, “It is I; do not be afraid.” 21 Then they willingly received Him into the boat, and immediately the boat was at the land where they were going.**

16 날이 저물자 제자들은 바닷가로 내려가. 17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을 향해 떠났다. 날이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님은 아직 제자들에게 돌아오시지 않았다. 18 그때 강한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기 시작했다. 19 제자들이 배를 저어 4-5킬로미터쯤 갔을 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 배로 가까이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무서워하자. 20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21 그래서 제자들은 기뻐하며 예수님을 배에 모셔들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곳에 다다랐다.

**Review**

Last time we looked at Jesus' fourth miracle. It was the feeding of the multitude. As I said last time this is the only miracle that appears in all four gospels. Although the miracle is commonly referred to as the feeding of the 5000, this figure is misleading. The figure of 5000 only applies to the number of men present. There was a very good reason why the Jews counted crowds in this way. It was because under the Jewish law men and women were not permitted to eat together in public. So the men would eat in one place and the women and children in another. We know then that there were far more than 5000 people present. It may well have been a crowd as large as 10 to 12 thousand people. This of course makes the magnitude of the miracle even greater. Let us then review some of the things we said last time.

John tells that the feeding of the multitudes took place around the Passover. The Passover occurs in the month of Nisan. This is the first month on the Jewish calendar and is known as the month of spring. We are told that Jesus had travelled across to the far shore of the Sea of Galilee. This meant He went from the mostly Jewish west to the largely Gentile east. He probably landed on the north eastern shore close to the town of Bethsaida.

This beautiful, though hotly contested area is known today as the Golan Heights. Jesus had wanted to get away to rest and spend time with His disciples. However wherever our Lord went He was followed by large crowds. Certainly there were people in these crowds who wanted to hear Jesus' teachings. He was a charismatic and dynamic public speaker. His words opened people's minds and caused them to reassess their priorities in life.

However John tells us that the majority were following Him for the spectacle. They were following Him in the hope of seeing something amazing. As Jesus went from place to place He performed numerous signs and wonders. Knowing human nature as we do it should not surprise us that many were captivated by these unexplained wonders. So, many were following the Lord Jesus not because of who He was but more because of what He could do.

Jesus and His disciples had gone up the mountain. They wanted to rest, recuperate and spend time in prayer. However their peace did not last long. Jesus soon sees a large crowd coming towards them. Ever compassionate and caring Jesus asks Philip where they might buy bread to feed all these people. Philip, who was a local man quite rightly observes that to feed so many people would require a large amount of money. His estimate is that it would require 200 denarii or about eight months wages. Even if they had such a huge sum of money where would they be able to buy such a large quantity of bread.

Jesus of course knew exactly how to solve this problem. He had asked Philip this question to test him. He wanted perhaps to judge how much faith Philip had in His ability to do the miraculous. It is at this point that another disciple; Andrew speaks up. He has found a small boy with his packed lunch. It comprised 5 barley cakes or biscuits and two small fish. Perhaps Andrew said it half jokingly, knowing that such a meagre amount of food could not really help them. The Lord Jesus however was about to confound everyone's expectations.

Jesus told the disciples to sit the people down on the grass. Then taking the loaves, He gave thanks to God and asked His disciples to distribute it to the crowd. Amazingly everyone ate as much as they wanted. John very deliberately points out that all the people ate until they were satisfied. When all the people were full Jesus sent the disciples around to collect what was left over. They collected 12 baskets worth of bread.

So, let us be clear here. At the end of the miracle everyone had eaten as much as they wanted, and still there was lots more left over than when they had started. Many of the people who witnessed this miracle were forced to question who has the power to do such a thing? Was this the prophet that Moses had said would come into the world? Was this the Messiah, the promised redeemer?

The signs all serve to make the observer ask the following questions. What's going on here? How can such a thing be possible? Who has the power to do such things? These question can only lead to one answer. Only God has the power to do such things. In which case Jesus must be God.

Today we move on to look at the fifth sign; Jesus walking on the water.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네 번째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리를 먹이는 일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이것은 4 복음서 모두에 나타나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기적을 일반적으로 5000 명을 먹이는 일이라고 하지만 이 수치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5000 이라는 숫자는 참석한 남성의 수에만 적용됩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군중을 계산한 데에는 아주 좋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 율법 아래서 남녀가 공공장소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한 곳에서 먹고 여자와 아이들은 다른 곳에서 먹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5000 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석했다는 것을 압니다. 아마도 10-12,000 명 정도의 군중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기적의 규모를 훨씬 더 크게 만듭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은 무리를 먹이는 일이 유월절 전후에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유월절은 니산월에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력의 첫 번째 달이며 봄의 달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여행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대부분이 유대인인 서쪽에서 대부분이 이방인인 동쪽으로 가셨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벳새다라는 마을과 가까운 북동쪽 해안에 상륙했을 것입니다. 이 아름답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지역은 오늘날 골란 고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쉬고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디로 가시든지 큰 무리를 따르셨습니다. 분명히 이 무리 가운데 예

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카리스마 있고 역동적인 대중 연설가였습니다. 그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삶의 우선순위를 재평가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대다수가 구경거리를 보기 위해 그분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놀라운 것을 보려고 그분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본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설명할 수 없는 경이로움에 사로잡혔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아니라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휴식을 취하고 회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예수께서는 곧 큰 무리가 그들에게로 오는 것을 보십니다. 항상 동정심과 보살핌이 있는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 모든 사람들을 먹일 빵을 어디에서 살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 지방 사람이었던 빌립은 그렇게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주 옳게 관찰했습니다. 그의 추산에 따르면 200 데나리온 또는 약 8 개월치의 임금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토록 큰 돈이 있어도 그 많은 빵을 어디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빌립에게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빌립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얼마나 많은 믿음을 갖고 있는지 판단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다른 제자가 있습니다. 앤드류가 이야기합니다. 그는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어린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5 개의 보리 케이크 또는 비스킷과 2 개의 작은 물고기로 구성되었습니다. 앤드류는 그렇게 적은 양의 음식이 그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반쯤 농담으로 그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기대를 어지럽히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풀밭에 앉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가지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모두가 원하는 만큼 먹었다. 존은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을 때까지 먹었다고 매우 의도적으로 지적합니다.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어 남은 것을 거두게 하셨다. 그들은 12 바구니에 해당하는 빵을 모았습니다. 자, 여기서 명확히 합시다. 기적이 끝날 무렵에는 모두가 먹고 싶은 만큼 먹었지만, 아직 시작했을 때보다 더 많이 남았습니다. 이 기적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은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세상에 오겠다고 말한 그 선지자가 이 사람이었습니까? 이것이 약속된 구속자인 메시아였습니까? 기호는 모두 관찰자가 다음 질문을 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무슨 일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하나의 대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징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물 위를 걷는 예수님.

### **Introduction**

Have you ever heard of the Green Basilisk Lizard? It's a fascinating reptile. They measure between 60-70 cm in length and weigh about 7 ounces (0.2 kg) in weight.

If you'd like to see one in the wild you will need to visit the tropical rain forests of South and Central America.

You are probably wondering what the Green Basilisk Lizard has to do with today's sermon. Well let me tell you this reptiles common name.

It is known as the Jesus Christ Lizard. How, you might ask did it get this name? I'm glad you asked, because now I can reveal the connection to today's sermon. It got this name because when it is threatened or scared it can run upright to safety across the surface of any nearby water. Running

only its back legs is can reach speeds of up to 1.5 metres per second. It can literally walk, or more accurately run on water. How is it able to do this?

It is able to do this because it has long toes on its rear feet with fringes of skin that flap against the water's surface. As they rapidly move their legs, they slap their splayed feet hard against the water which creates tiny air pockets that keeps the lizard from sinking. It's quite a sight. I encourage you to watch them doing this on YouTube when you have time.

Whilst the Green Basilisk Lizard is an amazing creature. And its ability to walk on water is spectacular, it is not a miracle. When we study the creature we discover a naturalistic explanation for what it can do. It's specially designed hind feet enable it to walk on water. It's all part of God's amazing design.

Human beings by contrast are not designed to walk on water. We don't have specially designed feet and we are way too heavy. So when the Lord Jesus walked on water it was against the natural laws that govern the way things work. It was a miracle. Let us turn now to look at this amazing sign.

녹색 바실리스크 도마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매력적인 파충류입니다. 길이는 60-70cm 이고 무게는 약 0.2kg 입니다. 야생에서 하나를 보고 싶다면 중남미의 열대 우림을 방문해야 합니다. 녹색 바실리스크 도마뱀이 오늘 설교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 파충류의 일반적인 이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도마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것이 이 이름을 얻었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와의 연관성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질문해 주셔서 기쁩니다. 위협을 받거나 겁이 났을 때 근처의 물 표면을 가로질러 똑바로 똑바로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이 붙었습니다. 뒷다리만 달리면 초당 최대 1.5 미터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걸을 수도 있고, 더 정확하게는 물 위를 달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물 표면에 펄럭이는 피부의 변두리와 함께 뒷발에 긴 발가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다리를 빠르게 움직이면서 벌린 발을 물에 세게 때리면 도마뱀이 가라앉지 않도록 작은 공기 주머니가 만들어집니다. 꽤 볼만합니다. 시간이 있을 때 YouTube 에서 이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시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Green Basilisk Lizard 는 놀라운 생물이지만. 그리고 물 위를 걷는 능력은 장관이지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물을 연구할 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연주의적 설명을 발견합니다.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된 뒷발입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설계의 일부입니다. 대조적으로 인간은 물 위를 걷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설계된 발이 없고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실 때 사물이 작동하는 방식을 지배하는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이제 이 놀라운 표시를 살펴보겠습니다.

### **Scene setting**

We pick up the story following the feeding of the multitudes. That account ended with many concluding that this was the prophet that Moses had predicted would come. Moses prediction had been that God would send someone like him in the future. This detail is significant. Moses had been both a political and a military leader for the people of Israel. He had led God's people out of oppression in Egypt and into freedom. This was of course what many expected the Messiah to do. The expectation, their fervent hope was for a military or political leader who would lead the people of Israel to overthrow their Roman oppressors. A leader who would restore their glory as a free and independent nation. Moses had been able to do amazing things through God's power. Jesus too had shown them that He possessed supernatural powers. Wouldn't Jesus be an ideal king and leader? It therefore made perfect sense to come and make Him their king even if He was unwilling or

reluctant to take such a position.

Jesus of course knew that He was not on earth to establish a physical kingdom. He therefore had no intention of allowing them to take Him and make Him their king. To avoid this crowd He goes up alone into the mountains. We can assume He had gone to pray and enjoy some fellowship time with the Father. Jesus frequently modelled for us a good example for prayer. Certainly we can pray whenever and wherever we are. And it is very good to be in frequent conversation with the Father. However I do think it is very helpful to set some time aside and go and be alone with the Lord. You could go into the local park or out to a quiet place to talk and listen to what God has to tell you. It's not easy in our busy lives but I encourage you to find the time. You will be blessed if you do.

It is at this point that we pick up the story.

우리는 군중을 먹인 다음 이야기를 선택합니다. 그 기록은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모세가 올 것이라고 예언한 선지자라고 결론짓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모세는 장차 하나님이 그와 같은 사람을 보내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세부 사항은 중요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치 지도자이자 군사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의 압제에서 자유로 인도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하기를 기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열렬한 희망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로마 압제자들을 전복시킬 군사 또는 정치 지도자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자유롭고 자주적인 민족의 영광을 되찾을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그들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상적인 왕이요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가 그러한 위치를 차지하기를 꺼려하거나 내키지 않더라도 와서 그를 그들의 왕으로 삼는 것은 완전한 이치에 맞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육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님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이 당신을 데려가 그들의 왕으로 삼도록 허용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이 무리를 피하기 위하여 그는 홀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우리는 그가 기도하러 갔고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주 우리에게 기도의 좋은 본을 보이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자주 대화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내어 주님과 단 둘이서 가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네 공원에 가거나 조용한 곳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시간을 내서 찾아보길 권한다. 하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선택합니다.

**16 Now when evening came, His disciples went down to the sea, 17 got into the boat, and went over the sea toward Capernaum. And it was already dark, and Jesus had not come to them.**

It's worth highlighting here that this same account is given to us in both Matthew (14:22-33) and Mark (6:45-52). John's account is the shortest and he gives us the least detail. Both Matthew and Mark tell us that Jesus had sent His disciples away so that He could be alone. They were to travel on to Bethsaida and meet Jesus there. As the day wore on there was no sign of Jesus. Maybe he had been delayed or decided to stay longer. Therefore the disciples get into a boat with the intention of travelling on to Capernaum. This remember was where they were based in Galilee.

John tells us that it was already dark. Would you go out in a rowing boat on a dark night? Probably not. But remember that many of the disciples were experienced fishermen. They knew the Sea of Galilee well. So the fact that the sun had set did not trouble them. However we need to also consider the idea here that John was using the "dark" in a symbolic sense. In his gospel he frequently uses darkness symbolically to imply a bad situation (John 3:2; 13:30). Light in scripture

is often a metaphor for righteousness and goodness. Darkness by contrast signifies chaos, evil and sin. So does John want us to make a connection between Jesus not being present and it being dark? I think he wants us to think about the situation we find ourselves in when we are apart from the Lord Jesus Christ. The disciples were in the dark, surrounded by stormy chaotic weather and unable to reach safety. When Jesus appears the chaos recedes and they are safe and secure.

The same principle applies to us today. Without the light and illumination of Christ in our lives we are lost in darkness and chaos. Think back to how John begins his gospel. With one of the most powerful and penetrating statements about the nature and identity of Jesus Christ.

여기 에서이 동일한 계정이 Matthew (14 : 22-33)와 Mark (6 : 45-52) 모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점을 강조 할 가치가 있습니다. John 의 계정은 가장 짧으며 우리에게 최소한의 세부 사항을 제공합니다. 마태 복음과 마크는 예수 께서 제자들을 홀로 보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Bethsaida 로 여행하고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야했습니다. 그날이 입었을 때 예수님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지연되거나 더 오래 머무르기로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Capernaum 으로 여행하려는 의도로 보트에 들어갑니다. 이 기억은 그들이 갈릴리에 기반을두고있는 곳이었습니다. 요한은 이미 어둡다 고 말합니다. 어두운 밤에 노를 젓는 보트로 나가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제자들이 경험이 풍부한 어부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갈릴리의 바다를 잘 알고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세워 졌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 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요한이 상징적 인 의미에서 “어두운”을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도 여기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그의 복음에서 그는 빈번하게 나쁜 상황을 암시하기 위해 상징적으로 어둠을 자주 사용합니다 (요한 복음 3 : 2; 13:30). 성경의 빛은 종종 의로움과 선의에 대한 은유입니다. 대조에 의한 어둠은 혼돈, 악, 죄를 의미합니다.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과 어두워지는 예수와 어두워 지기를 원합니까? 나는 그분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을 때 우리 자신이 찾은 상황에 대해 생각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폭풍우가 치는 혼란스러운 날씨로 둘러싸여 안전에 도달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 께서 나타나면 혼란이 물러 가고 안전하고 안전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조명이 없으면 우리는 어둠과 혼란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요한이 어떻게 복음을 시작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과 식별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침투하는 진술 중 하나.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2 He was in the beginning with God. 3 All things were made through Him, and without Him nothing was made that was made. 4 In Him was life, and the life was the light of men. 5 And the light shines in the darkness, and the darkness did not comprehend it. (John 1-5)**

Jesus is the light. Without Him we are surrounded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by darkness.

So let us imagine the scene. The disciples rowing out onto the dark lake. Let's see what happens next.

예수는 빛입니다. 그 없이는 우리는 어둠으로 내부적으로 외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제자들은 다크 호수로 젓는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18 Then the sea arose because a great wind was blowing.**

I have been at sea and experienced some moderately stormy weather. I think particularly of a crossing of the English channel that was rather rough. The boat pitched dramatically up and down

and there were plenty of green faces among the passengers. We all know that oceans can be unpredictable and prone to violent storms, but we tend to think of lakes as being rather calm and placid. I spent a summer many years ago working at a Boy's camp on beautiful Lake Winnepesaukee in new Hampshire. Even on the windiest days the surface of the lake was barely ever more than a gentle ripple.

So we read this verse and perhaps think there may some exaggeration going on. I wondered how bad the weather could be on the sea of Galilee so I did some research.

The Sea of Galilee lies 680 feet (207 m) below sea level. It is surrounded by hills, especially on the eastern side where they reach 2000 feet (609m) high. These mountains are a source of cool, dry air. By contrast the climate around the sea is semi-tropical with warm, moist air. The large difference in height causes large temperature and pressure changes. This can result in strong winds being funnelled down from the mountains and whipping across the sea.

Even a 40 knot wind regarded as a “fresh gale” on the Beaufort scale (two levels below an official storm) can create 2 m high waves on the sea. Such waves could easily swamp a first century boat. So I think we can imagine that the disciples were becoming a little concerned about the weather conditions. Let's read on.

나는 바다에 있었고 약간의 폭풍우가 많은 날씨를 경험했습니다. 나는 특히 거칠고 영어 통로의 교차점을 생각합니다. 보트는 극적으로 위아래로 투구했으며 승객들 사이에 녹색 얼굴이 많이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바다가 예측할 수없고 폭력적인 폭풍에 걸리기 쉬운 것을 알고 있지만, 호수를 다소 차분하고 온화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몇 년 전에 여름에 뉴햄프셔의 아름다운 호수 위니 페소키 (Winnepesaukee)의 소년 캠프에서 일했습니다. 가장 바람이 불는 날조차도 호수의 표면은 부드러운 잔물결보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이 구절을 읽고 아마도 과장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갈릴리 바다에 날씨가 얼마나 나쁜지 궁금해서 연구를했다. 갈릴리의 바다는 해발 680 피트 (207m)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은 특히 2000 피트 (609m)의 동부 쪽에서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산들은 시원하고 건조한 공기의 원천입니다. 대조적으로 바다 주변의 기후는 따뜻하고 축축한 공기와 반 열대입니다. 높이의 큰 차이는 큰 온도와 압력 변화를 유발합니다. 이로 인해 산에서 강한 바람이 깔려 있고 바다를 가로 질러 채찍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Beaufort Scale (공식 폭풍 아래 2 레벨)에서 "신선한 강풍"으로 간주되는 40 개의 매듭 바람조차도 바다에 2m의 높은 파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한 파도는 1 세기 보트를 쉽게 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이 기상 조건에 대해 조금 걱정하고 있다고 상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 So when they had rowed about three or four miles, they saw Jesus walking on the sea and drawing near the boat; and they were afraid.**

It would have been very hard work to row against the wind. Matthew in his gospel tells us that this happened during the fourth watch of the night, sometime between three and six in the morning. So, they had rowed hard for between six to eight hours (Matt 14:25). The Sea of Galilee is about 8 miles wide so they were roughly half way across. This fact is significant because it can be used to refute one of the claims made by liberal scholars who don't like the supernatural parts of the bible.

They say that the boat was actually near the shore and the disciples saw Jesus walking along the shore line. From a distance, and from their vantage point in a rocking boat it only looked as if Jesus was walking on the water. Now it is true that the Greek word used here for “on” (*epi*) can also mean “by.” However, I am convinced that John means that Jesus was walking across the surface of the sea not along its edge. How can we be sure of this? Well, firstly John is including this as one of his

special seven signs. Someone walking along the edge of a lake is hardly a miraculous sign. Secondly he tells us that the disciples were afraid. If they had seen Jesus, a beloved friend and teacher walking along the shore they were hardly likely to be afraid. Mark tells us that they thought they were seeing a ghost (Mark 6:49). John doesn't tell us in his account the basis for their fear but simply that they were afraid at the sight of Jesus approaching their boat. Human beings are often afraid by things that cannot logically be explained. This was I believe the case here. Let us see what happens next.

바람에 대항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복음에서 마태 복음은 이것이 아침의 네 번째 시계에서 아침에 3~6시 사이에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6시간에서 8시간 사이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마 14:25). 갈릴리의 바다는 폭이 약 8마일이므로 대략 반쯤 갔다. 이 사실은 성서의 초자연적인 부분을 좋아하지 않는 자유주의 학자들의 주장 중 하나를 반박하는 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들은 배가 실제로 해안 근처에 있었고 제자들은 예수가 해안 선을 따라 걷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멀리서, 그리고 흔들리는 보트의 유리한 지점에서 그것은 마치 예수께서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on”(epi)에 여기에 사용된 그리스어 단어는 또한 “by”를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요한이 예수가 바다 표면을 가로질러 걷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글쎄, 먼저 요한은 이것을 그의 특별한 7가지 징후 중 하나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호수 가장자리를 따라 걷는 사람은 기적적인 표시가 아닙니다. 둘째, 그는 제자들이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를 보았다면, 사랑하는 친구이자 선생님이 해안을 따라 걷는 교사는 거의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크는 그들이 유령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마가 복음 6:49). 요한은 우리에게 자신의 설명에서 그들의 두려움의 근거를 말하지 않지만 단순히 예수께서 배에 다가오는 것을 보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단순히 말하지 않았다. 인간은 종종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에 의해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여기에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

## 20 But He said to them, “It is I; do not be afraid.”

Jesus identified Himself by telling them, “It is I.” This is the Greek *ego eimi* which can literally be translated as “I am.” As you know this expression is used throughout scripture when God is identifying Himself to human beings. The first time it's used in the bible is when Moses asks God what His name is (Exodus 3:14). God tells Him that He is “I AM.” Literally, the one who exists. God is telling Moses that He is the one and only eternal God. Jesus sometimes uses this expression to identify himself as God. For example in John chapter 8 verse 24 Jesus says;

**Therefore I said to you that you will die in your sins; for if you do not believe that I am He, you will die in your sins.”**

John as you probably know includes seven “I am statements” that Jesus made during His earthly ministry. Here however we can read Jesus words as simply Him saying, “It's me.” He wanted to reassure them that it was not a ghost or spirit they were seeing but the real flesh and blood Jesus. However we should never forget John's purpose in writing. He is writing to show us that Jesus is far more than a mere man. He is God. Who else has the ability to override the laws of nature. Only the one who created and upholds them; only God.

Jesus then tells them not to be afraid. What a great reassurance it must have been to these tired and frightened men to have Jesus in their presence. Let us find out how the story concludes.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그것은 I 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식별하셨습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I Am”으로 번역 될 수 있는 그리스 자아 EIMI 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식별하실 때 경전 전체에 사용됩니다. 성서에서 처음으로 사용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4).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존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분이 유일한 유일한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때때로 이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을 하나님으로 식별합니다. 예를 들어 요한 8 장에서 24 절 예수는 말씀 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이 당신의 죄로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가 그분이라고 믿지 않으면, 당신은 당신의 죄로 죽을 것입니다.” 당신이 아는 것처럼 요한에는 예수께서 지상의 사역 중에 만든 일곱 가지 “I am am 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나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의 말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 보고있는 유령이나 정신이 아니라 진정한 육체와 피의 예수라는 것을 안심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의 목적을 서면으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예수가 단순한 사람 이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신입니다. 다른 사람은 자연의 법칙을 무시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을 창조하고 지지하는 사람 만; 오직 신. 그러면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피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의 임재에있는 것이 얼마나 큰 안심이었을 것입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 지 알아 보겠습니다.

## **21 Then they willingly received Him into the boat, and immediately the boat was at the land where they were going.**

Once reassured the disciples take Jesus into the boat. We are then told that the boat immediately arrived at its destination. Over the years this curious expression has been understood in a number of different ways. Perhaps it means that they were close to their destination and reached it soon after Jesus got on board. Maybe it means that once Jesus was on board it appeared as if they reached their destination very quickly. Possibly it means that once Jesus came onto the boat the winds died down and they easily and quickly reached where they were going. All of these things are possible interpretations. Some also think that John is actually describing a second miracle. That Jesus supernaturally brought them immediately to their destination. I am personally inclined to this view and here is why.

It hardly seems credible that Jesus would perform such a magnificent act of power only to sit in a boat and have it rowed slowly and painfully to shore. I think that the miracle of walking on the water was followed by the Lord Jesus immediately and miraculously transporting the boat to the shore.

We would do well to think about the purpose of this sign. One of the signs purposes was to instil trust and faith within the disciples even when Jesus was not present. Soon He would leave them and they would face many trials and “storms.” When these times came they would be able to think back to this experience. They would remember how the Lord came to them in their time of fear and frustration. They would have the conviction that even after He had gone He would be with in the difficult times they faced. That is why I think the sign comprised two teaching components for the disciples. The first was realising how alone you are and in the dark without Christ. The second is realising that with Him by your side wonderful things can be accomplished.

일단 안심이되면 제자들은 예수를 배로 데려갑니다. 우리는 보트가 즉시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들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이 호기심 많은 표현은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이해되었습

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들이 목적지에 가까워지고 예수가 탑승 한 직후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예수가 탑승 한 후에는 마치 목적지에 매우 빨리 도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마도 예수 께서 보트에 오셨을 때 바람이 죽었고 그들이 가고있는 곳으로 쉽고 빨리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가능한 해석입니다. 일부는 또한 요한이 실제로 두 번째 기적을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는 초자연적으로 그들을 목적지로 즉시 데려 왔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 견해에 경향이 있으며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보트에 앉아서 해안으로 천천히 고통스럽게 노를 젓기 위해서만 그러한 웅장한 권력 행위를 수행한다는 것은 믿을만한 것 같습니다. 나는 물 위를 걷는 기적에 이어 주 예수 께서 즉시 그리고 기적적으로 배를 해안으로 운송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표시의 목적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징후 중 하나는 예수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도 제자들 안에 신뢰와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었습니다. 곧 그는 그들을 떠날 것이고 그들은 많은 시련과 “폭풍”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가 왔을 때 그들은 이 경험을 다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좌절의 시간에 주님 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오셨는지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가 갔을 때에도 그들이 직면 한 어려운시기에 함께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징후가 제자들을위한 두 가지 교수 구성 요소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얼마나 혼자 있고 그리스도가없는 어둠 속에 있는지 깨닫는 것이 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에게 당신과 함께 멋진 것들이 달성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 Things to think about

I have four comments to make on today's passage.

#### 1 Learning through the hard times

The disciples had been out on the Sea of Galilee for a long time. For many hours they had rowed against the wind and waves. We can imagine them being exhausted and frustrated. Perhaps some of them wondered why they were even out on the lake. Doesn't that often describe our own Christian experiences. At times, we struggle and do not seem to make much progress. The hardships of life frustrate and hamper our progress. And yet the example we see here today should encourage us. Jesus had not forgotten about the disciples. They were never in serious danger because our Lord always had them in his hand. He had plans and purposes for all of them. When the time was right He came to them and eased their fears. We too can rest assured that we always remain safely in His hands. We will go through troubles and hard times but our Lord is always close. Always ready and willing to come to walk with us.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오랫동안 나왔습니다. 여러 시간 동안 그들은 바람과 파도에 젖혔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지치고 좌절한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 중 일부는 왜 그들이 호수에서 균일한지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종종 우리 자신의 기독교 경험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많은 진전을 이루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삶의 어려움은 우리의 진보를 좌절시키고 방해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예는 우리를 격려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 대해 잊어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그분의 손에 그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심각한 위협에 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 모두를위한 계획과 목적을 가졌다. 시간이 옳았을 때 그는 그들에게 와서 그들의 두려움을 완화시켰다. 우리도 우리는 항상 그분의 손에 안전하게 남아 있다고 확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어려운시기를 겪을 것이지만 우리 주님은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걸을 준비가되어 있습니다.

## **2 Are we looking out for Jesus**

It's interesting to me that the disciples were so afraid at the appearance of Jesus. It's also interesting where their minds instantly went. They concluded that it must be a ghost or a spirit of some kind. They had witnessed Jesus doing amazing things and yet none of them said, look it must be Jesus. So why did they not recognise Jesus. The simple answer is that they were not looking for Him. They were relying on their own abilities to row against the storm and get to the shore. We too often neglect faith and rely upon our own perceived abilities. We neglect prayer and think the success or failure of something rests on our efforts.

Let us then remember that all we do rests upon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Let our eyes always be seeking Him. Not just during the bad times but also in the good.

제자들이 예수의 모습을 두려워하는 것은 흥미 롭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즉시 어디로 갔는지는 흥미 롭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유령이거나 어떤 종류의 정신이어야한다고 결론 지었다. 그들은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하는 것을 목격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으며, 예수님이 어야합니다. 그래서 왜 그들은 예수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간단한 대답은 그들이 그를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폭풍에 대항하여 해안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고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을 무시하고 우리 자신의 인식 된 능력에 의존합니다. 우리는기도를 무시하고 무언가의 성공 또는 실패가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하는 모든 일은 주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 께 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눈이 항상 그를 찾고있게하십시오. 나쁜시기뿐만 아니라 좋은 시간에도.

## **3 Jesus proved to have mastery of the elements**

As I have said on a number of occasions the signs were always done with a purpose. Jesus walking on the water was not some amazing stunt designed to wow the disciples. Jesus did it to show them that as God He had mastery over the elements. Human beings might try to stop the rain or command storms to stop but the natural world does not listen to us. It proved that Jesus was who He claimed to be.

내가 엄청나게 많은 경우에 말했듯이, 표지판은 항상 목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예수는 물 위를 걷는 것은 제자들을 놀라게하기 위해 설계된 놀라운 스텐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요소들에 대한 숙달을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것을하셨습니다. 인간은 비나 지휘 폭풍을 막으려고 노력할 수도 있지만 자연 세계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는 자신이 누구라고 주장 하셨는지 증명했습니다.

## **4 Hard times are often steps to a greater relationship with our savior**

We all hope and pray for a trouble free life. The reality is that troubles are a reality of life on earth. Sometimes we can wrongly think that our suffering is because God is ignoring or has forgotten us. This is never the case. The disciples had to experience trials and tests to give them greater faith. To bring them into a closer and deeper relationship with the Lord. The same is often true for us. The hard and difficult times force us to turn to the Lord and rely fully and completely upon him. In this regard they are steps that bring us into a greater and more loving relationship with Him.

우리 모두는 문제없는 삶을 위해 희망하고기도합니다. 현실은 문제가 지구상의 삶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께서 우리를 무시하거나 잊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더 큰 믿음을주기 위해 시련과 시험을 경험해야했습니다. 그들을 주님과 더 가까이서 깊은 관계로 데려 오기 위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시기는 우리가 주님 께로 향하고 그 분께 온전히 의존하도록 강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들은 가져 오는 단계가 그와 더 크고 사랑스러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